

단체교섭속보

- 주요요구
1. 정년연장, 신규채용
 2. 고정OT 월 20시간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8월 11일(화) / 제 03호

3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11일(화) 10:00 ~ 10:3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 노측 : 이현우 교섭위원 외 9명 ☐ 불참 : 김병철 교섭대표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박춘석 교섭위원(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11일(화) 12:00 ~ 12:3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 노측 : 이현우 교섭위원 외 9명 ☐ 불참 : 김병철 교섭대표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조성국 교섭위원(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 노 : 교섭에 앞서 전차 교섭 자리에서 인건비 책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판교(본사)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왜 제공하지 않는가.
- ☐ 사 : 임금 인상 관련 자료는 과거에도 노동조합이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못했다. 임금 인상 수준을 정해두고 교섭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
- ☐ 노 :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 실적 설명회를 실시하며 제공한 자료는 '대외비'라며 전부 건어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공시에 올라왔다. 하루만에 공시에 발표되는 자료가 대외비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이 현 노사관계의 주소다. 인건비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약속을 했으면 제공하라.

[임금 요구안 취지 설명 후]

- ☐ 노 : 월급제 도입 이후 월급제를 다시 보완 검토해서 협의 한 적이 없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 하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매년 임금인상을 해도 피부로 체감을 못한다. 예전 직급의 차별을 줄이고자 자동 진급을 노사간 합의로 도입하였는데, 어느 해부터 보직계장에 대한 수당이 대폭 인상되어 큰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월급제 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회사의 적극적인 검토 바란다. 그리고 지난번 대표이사와 만났을 때도, 노사협의부터 교섭까

지 최대한 합류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자고 밝힌 바 있고 시간 닿는 한 참석하기로 답변받았다.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차기부터는 참석바란다.

□ 사 :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경쟁력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당연하다. 그래서 임금은 회사 입장에서 지불 능력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측에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길 바란다.

□ 노 : 전차 교섭에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 받았다. 25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26년 상반기 역시 최대 매출임을 확인했다. 회사가 말하는 부담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 사 : 노측 요구안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하듯이 회사도 대내외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다.

□ 노 : 2026년도 임·단협 교섭이 굉장히 늦어졌다. 최대한 조기에 매듭짓고자 주 2회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횟수와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자.

□ 사 : 동의한다. 실무에서 논의해서 속도를 내자. 그리고 임금교섭 자리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 부분도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면 한다.

□ 노 : 임금이 아닌 별도의 문제는 실무를 통해 일정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더 이상 다룰 내용이 없다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자.

- 단체협약 교섭 주요 내용 -

□ 노 :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하기 전에 한마디하겠다. 회사가 제출한 안을 확인해 보니, 근로조건과 복지가 후퇴된 안을 제출했다. 회사측 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사 : 노동조합에서 근로조건 저하라고 표현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 논의하자.

□ 노 : 이미 기업노조 당시 전임자 4명이 줄였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전임자 축소안을 제시하면 교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 상주 문제를 간호사로 바꾸자고 회사가 말한다. 분명한 것은 회사의 성장과 조합원 복지는 비례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회사측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협약 요구안 취지 설명 후]

□ 사 : 취지설명 잘 들었다. 회사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다. 회사측 요구안 설명하겠다.

□ 노 : 회사측 요구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금속전환으로 인한 기본적인 단협 승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 요구안은 근로조건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금속노조의 방침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올해 임단협이 원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회사안을 철회하라. 이만 마치자.